

#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 비판

—1950년대 戰時期 아동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임성규\*

## < 차 례 >

1. 반공 교육 비판 논의의 대두와 의미
2. 아동문학 교육과 반공주의의 과거와 현재
3. 戰時期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 비판
4. 아동문학 교육의 역사성과 균형성의 회복

## 1. 반공 교육 비판 논의의 대두와 의미

식민지와 분단의 불구적 체험은 이념의 경직성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압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문학교육의 ‘성찰적 근대화’를 가로막고 있다. 외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외 의존성과 정신문화적 주체성의 결여는 아동문학 교육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비판적 사고를 진작시키는 현실주의 작품의 교육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편협성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sup>1)</sup> 그리하여 국가주의, 애국주의 담론과 뒤얽힌

---

\*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1) 제도적인 아동문학 교육에서 리얼리즘의 세계관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 작품들을 가르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현행 아동문학 교육의 체제가 방정환에서 시작하여 임길택으로 이어지는 현실주의 아동문학의 전통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리얼리즘의 일방적 배제는 명백히 냉전주의적인 사고에 뿌리를 둔 편협한 발상이며,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규율해 온 반공주의가 지금 여기의 아동문학 교육 상황에서도 내밀

채 전형적으로 전개된 반공주의(anti-communism)의 그물망은 근·현대 아동 문학 교육의 흐름에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교수요목기에서 4차 교육과 정기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한정할 경우 민족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탈이념적이고 비일상적인 순수문학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관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전면화되었던 것이 전 시기 문학교육의 반(反)민주적 역사인 것이다.<sup>2)</sup>

특히 반공주의는 과거의 공포적인 정신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곧, 한국의 반공주의 기제는 우리의 몸 안에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유발하는 일종의 자동적 조건 반사의 회로 판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 타자로서 각인되어 있다.<sup>3)</sup> 그리하여 탈냉전의 기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금 여기’의 교육적 현실에서 과거의 비윤리적 압제와 파시즘적 전횡을 되짚어 비판하는 일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1950년대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의 전개 양상이 ‘전쟁이 곧 교과서’<sup>4)</sup>라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일방적으로 침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적으로 강제된 반공 교육의 영향력은 현실적 삶을 감시·규율하는 내적 기제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많이 진전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감시받고 있다는 자의식이나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실제적 삶을 규율하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감시와 처벌’의 지배적 규율이 우리가 아동기에 경험한 반공 교육의 영향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군과 적을 선명히 구분하는 단순 대립

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차혜영, 「국어 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2005, 99-128쪽; 강진호, 「반공주의의 규율과 ‘국어’ 교과서」, 『민족문학사연구』 28호, 민족문학사학회, 2005, 143-178쪽; 강진호, 「‘국민 만들기’와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83-114쪽 참조
- 3) 권혁범,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분단 규율’을 넘어서기 위하여」,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55쪽.
- 4) 강준만·김환표, 「‘전쟁이 교과서다!」, 『희생양과 죄의식—대한민국 반공의 역사』, 개마고원, 2004, 124-128쪽 참조

의 이분법은 아동기에 체험한 이데올로기 교육의 결과이며, 의도적으로 체제 비판적 연술을 회피하는 비판 정신의 불모성도 그러한 이념적 제한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아동문학 교육과 반공주의의 결합은 한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정신적 금제(禁制)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문학 교육에 미친 반공주의의 실체를 정치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분단 모순을 다룬 리얼리즘 계열의 아동문학 작품들이 경원시되는 여기의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한다.<sup>5)</sup> 즉, 일반적인 아동문학 작품의 향유에 있어서도 분단 모순에 접근하는 작품의 경우 감상 주체의 ‘레드 콤플렉스’는 여전히 주체적인 감상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이다. 특히 아동문학 작품을 접하는 아동들의 경우 지배 이데올로기의 작용력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아동문학 교육과 반공주의의 만남은 실질적인 문학 교육의 발전에 큰 제약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동관이 “‘아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도”<sup>6)</sup>에 의해 유지·보수된다는 점에서 아동이야말로 이념 대립의 가장 큰 희생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에둘러 볼 때 현 시기 연구 담론의 흐름은 반공주의의 문학 교육적 폐해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 거세게 몰아치는 지점에 서 있다. 반공주의와 한국문학의 연관성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국가 이데올로기의 압력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연이어 제기되는 흐름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전체 문학 장(場)을 독점한 순수주의 문학의 권력 독점 비판과 함께 작가의 창작 정신에 대한 검열 문제가 실제 작품 창작 과정을 중심으로 밀도 있게 논의<sup>7)</sup>되었으며, 교

5) 비근한 예로 분단 모순에 의한 비극적 개인사를 아동청소년문학의 대서사 양식으로 편집하게 형상화한 이원수, 권정생, 임길택의 현실주의 동화들은 아동문학 비평가들에게는 우수한 문학 정전(canon)으로 평가받지만, 제도적인 문학 교육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아동문학 정전과 아동문학 교육 정전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적인 아동문학 교육에 작용하는 반공주의의 현재적 압력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6) 柄谷行人, 「兒童の發見」, 『日本近代文學の起源』, 講談社, 1980, 163쪽.

수요목기에서 4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지배한 반공주의 규율 비판이 종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sup>8)</sup>

그렇게 볼 때, 본격적인 검토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의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문학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들에게 성숙한 어른이 부과하는 것이란 점에서 반공주의적 규율이 보다 강력한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50년대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아동문학 교육과 반공주의의 과거와 현재

아동문학 교육에 있어서도 아동들의 주체적 자아를 바로 세우는 비판적 현실인식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정치적 민주화의 바람으로 이념 교육의 방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내면화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내밀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중적인 주체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sup>9)</sup> 또한, 문학 감

7) 김한식, 「김동리 순수문학론의 세 층위—반공주의와 순수문학의 상동성을 중심으로」, 이 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유입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작가의 자기 검열』, 김진기, 『반공에 전유된 자유, 혹은 자유주의』, 강웅식, 『전체주의적 반공주의와 순수·참여 논쟁』, 강진호, 『반공의 규율과 작가의 자기 검열』, 이상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2005, 11-48쪽, 49-98쪽, 129-156쪽, 157-194쪽, 195-228쪽, 229-272쪽, 강진호, 『반공주의의 소설·사회학적 기능』,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이상,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04, 315-345쪽, 370-393쪽.

8) 김예니,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의 구현 양상」, 강진호, 「‘국민 만들기’와 ‘국어’ 교과서」, 방금단, 「‘국어’ 교과서에 드러난 민족주의의 구현 양상」, 장영미, 「주체의 소멸과 권력의 메커니즘」,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 정전화 과정 연구」, 이상,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53-82쪽, 83-114쪽, 179-200쪽, 225-248쪽, 277-298쪽.

9)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조한혜정·이우영 편,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62쪽.

상의 위계화의 측면에서도 일차적으로 분석과 해석된 감상의 내용들은 비판적 시각을 통해 보다 정치한 이해의 담론을 만들어 가야한다. 현실주의 문학 작품은 총체적 삶의 이해를 지향한다는 교육목표와 형식주의적 기제에 경사한 교육내용의 간극을 극복하는 유효한 매개가 될 수 있다.<sup>10)</sup>

하지만 현재의 아동문학 교육은 리얼리즘에 기반을 둔 아동문학 작품 읽기를 지극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병폐를 아동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일은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호도되기 십상이다. 그것은 단지 지금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전쟁기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지배적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을 이간질해 상호 적대시하게끔 만든 ‘레드 콤플렉스’는 여전히 파괴적인 ‘우상’으로 기능하면서 총체적 차원의 ‘삶을 위한 문학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sup>11)</sup> 그것은 아래에서 보듯 분단시대를 살아온 아동문학가의 체험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시대적 제한과 무의식적 배제의 문제이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우리 아동문학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앞서도 말했지만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문제에선 늘 등을 돌렸던 대다수 아동문학인들은 속으로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극소수 아동문학인들에 대해서 별로 탐탁찮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권오삼, 「分斷祖國과 兒童文學의 役割」, 『아동문학평론』 83호, 아동문학평론사, 1997 여름, 24쪽)

이러한 아동문학의 통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현실주의 아동문학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제도교육과 철저히 절연되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체계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초등학교 문학교육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에 그 한 원인이 있겠지만 형식주의, 순수주의에 경사된 아동문학 교육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온 일반 대중들의

10) 김상욱, 「전형성의 이해와 소설교육」, 우한용 외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202쪽.

11) 강준만 외, 『레드 콤플렉스—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 삼인, 1997, 9쪽.

통념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아동문학 교육을 그 발생론적 맥락에서 사유해 보는 작업은 그 현실주의 배제의 회로를 정밀하게 검토해 보는 일에 해당한다.

우선 아동문학 작가의 측면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현실주의 작품의 창작은 외적 검열 기제와 반공주의에 의해 억압된 작가 스스로의 자기 검열의 압력으로 제대로 된 수행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 전쟁기 이후 대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 현실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아동문학 작가는 동화에서는 이원수와 권정생, 이현주, 윤기현 그리고 최근의 김중미, 박기범 정도에 국한되며 동시에서는 이원수, 이오덕, 임길택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나마 평론 분야에서 이원수와 이오덕의 현실주의 아동문학 비평이 위안을 줄 뿐이다. 이는 그만큼 반공주의가 가져다 준 내면적 압력이 현실주의 계열의 작품 창작을 옥죄고 있었음에 다른 아니다.

가령 권정생의 『몽실 언니』(창작과비평사, 1984)는 한국 동화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지만, 분단 현실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제도교육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을 주제로 하는 「강아지똥」(『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학 제재로 적극 수용된 것과는 판연한 차이를 보인다. 거기에는 주인공 몽실이 분단 현실을 바라보는 균형적 인식을 위협한 것으로 간주하는 냉전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세 암흑시대에나 있을 법한 마녀 사냥식 용공음해가 되풀이되고 적색 공포증이 악마의 주술처럼 가공할 만한 마력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진취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그러므로 아동문학 작가의 측면에서 반공주의의 영향력은 체제나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 창작을 억누름으로써 다원적인 아동문학 작품의 생산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아동문학 교육에서 현실주의 작품의 배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에 주어진 현상의 이면을 간파할

12) 강진호, 「탈분단을 위한 마음의 감옥 열기—냉전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지평」, 『탈분단 시대의 문학 논리』, 새미, 2001, 91쪽.

수 있는 비판적 인식력과 같은 기초적 능력의 발달을 가로막는다는 데에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규율 권력의 세례를 받고 규율이 요구하는 모범 생으로 자라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의 미세한 국면에까지 측수를 뻗치고 있는 규율 권력에 대한 해방된 감수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sup>13)</sup> 그런 의미에서 아동문학 교육에 미친 반공주의의 영향력은 비판적 주체로 성장해야 할 학습자들의 의식을 수동적인 무지한 객체로 주조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동문학에서의 반공주의가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비판력이 형성되기 이전의 어린 이들에게 타자의 담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하는 오인의 구조를 아비투스 차원에 구조화”<sup>14)</sup>함으로써 그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한국 전쟁기에는 전시 체제 상황에서 전쟁 그 자체가 아동들의 교육 내용이 되었으며, 월남 작가와 중군 작가를 중심으로 반공 아동문학 작품이 창작되어 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념을 주입하였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은 아동문학을 하나의 예술적 의미를 지닌 독자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계몽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적 허위이며, 아동을 성인의 예속물로 보고 성인 중심의 논리를 일 방향으로 투사하는 강제적 산물일 수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과거에 그토록 양산된 반공 동화를 지금에 있어 아무도 기억하는 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이데올로기의 무망함을 능히 알 수 있으며, 1950년대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논리를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 임지현,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33쪽.

14) 선안나, 「문단 형성기 아동문학장의 고찰」, 『천의 얼굴을 가진 아동문학』, 청동거울, 2007, 129쪽.

### 3. 戰時期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 비판

전시기의 아동문학 교육은 현재의 아동문학 교육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동문학 교육 상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아동문학 교육의 역사적 맥락과 지층에서 현재적 문제를 되짚어 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공주의는 생존을 위해 위로부터 강요된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모(共謀)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상징폭력(象徵暴力)에 의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수용된 것이기 때문이다.<sup>15)</sup> 그런 의미에서 반공주의와 교육의 길항 관계는 일면 대다수 관련 주체들의 암묵적인 합의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 3.1. 전시 아동교육 체제를 통한 반공 규율의 내면화

한국전쟁으로 휴교령에 들어감으로써 일시 정지되었던 교육 상황은 전쟁 경과 1년 후 체제를 정비하면서 전시상황에 맞는 교육 수행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이른바 중앙집권적인 ‘전시교육체제’에 기반을 둔 ‘전시 하 교육 특별조치요강(1951. 4)’으로 2대 문교장관을 역임한 백낙준은 반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교육 활동을 통해 대대적인 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한 교육의 국가 통제는 적색교원 일소 명령, 국민사상지도원의 설치, 교육공무원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법률적 통제,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로 구성<sup>16)</sup>되는데 이는

15) 김정훈·조희연,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2003, 125쪽; Pierre Bourdieu., Language and Symbolic Power.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26-27쪽.

현행 교육의 근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기가 빛은 역사적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것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가해진 국가의 통제와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체제 아래 초등교육은 반복과 친미를 중점으로 하는 반공교육 강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시 상황에서 교과서 부족 실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공된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시생활』(1951. 3)이다.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시독본』과 달리 『전시생활』은 저, 중, 고학년으로 구분되어 모두 세 권으로 간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전쟁 상황을 아동의 수준에서 기술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적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고, 복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의 피폐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며,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미군의 전투 행위를 미화하는데 주력하였다.<sup>17)</sup> 그것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쟁의 도구를 아동이 직접적으로 인지하도록 강요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동들도 내면적으로 공산 세력과 싸우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고무한다는 점에서 막연한 호승심과 추상적인 적개심을 일으키는 역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195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이 한국전쟁 이전 체제 측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민족주의적 수식을 불가피하게 했던 대중의 민족적 요구와 의식이 급격히 해체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sup>18)</sup>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6) 정미숙, 「초기 한국 문교정책의 교육이념 구성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분석」, 교육출판기획실 편,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1989, 130-131쪽 참조.

17) 미군정후 이승만 정권시 단행한 김인정 교과서 정책이 좌익계열 일소에 있었음은 이미 반공주의의 영향력이 1대 안호상 장관시기부터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당시 편수국에 교과서 편수일을 맡았던 한 편수관은 “초대 장관 안호상씨는 반공투사로 자타가 공인하던 터에 一民主義를 표방하여 교재로서도 一民主義思想을 고취코자 노력하는 중에 좌익작가의 글이 어떻게 國定 또는 檢定 教科書에 들 수 있는냐는 소신이었던 것이다.”라고 1950년대 초기의 정황을 회고하고 있다.

최태호, 「編修秘話」,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안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15쪽.

18) 김진경, 「분단 이후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전환기의 민족교육』, 푸른나무, 1989, 183-184쪽.

## &lt;초등학교 전시교재 발행 현황&gt;

발행 구분	1집	2집	3집
전시생활 1	비행기	탱크	군함
전시생활 2	싸우는 우리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씩씩한 우리 겨레
전시생활 3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국군과 유엔군은 어떻게 싸우나	우리도 싸운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文教史(1945~1973)』, 중앙대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231쪽 참조)

1, 2학년용인 <전시생활 1>에서는 전쟁의 수단이 되는 무기들을 직접 인식하고, 3, 4학년용인 <전시생활 2>에서는 반공으로 무장하여 공산당을 쳐부순다는 전쟁 의지를 심어주며, 5, 6학년용인 <전시생활 3>에서는 미군 주도의 유엔군의 도움을 감사하고, 아동들 자신도 내면적으로는 적과 맞서 싸운다는 정신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특색이다. 곧, 전반적인 내용은 어린이들이 전쟁과 반공의 당위성을 알고 전쟁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교재 명에서부터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그대로 선전하는 것은 당시의 부정적 이데올로기 교육의 실체를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sup>19)</sup> 더욱이 이러한 정신훈육은 육체훈육과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위력을 십분 발휘하게 된다. 일제 말기 군사적 훈련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아동들이 운동장에 군인처럼 도열하고 일방적인 반공적 훈시를 듣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아동들의 삶을 반공이라는 이념에 초점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체 길들이기 전략’인 셈이다. 그리하여 한 연구자는 이를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의 변환으로 파악<sup>20)</sup>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의 경우 그러한 삶의 체계를 부지불식중에 습관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념이 아동의 내면 깊숙이 각인되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19) 한준상·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 4권, 1989, 한길사, 360쪽.

20) 고길섭, 「반공하는 삶—주체 만들기」, 『우리 시대의 언어게임』, 토담, 1995, 231-232쪽.

<1950년대 문교부 장학방침 현황>

문교년도	중점 장학방침	문교장관
1951학년도	1. 학행일치교육 2. 일인일기교육 3. 도의교육 4. 국방교육	백낙준
1952학년도	1. 자치인의 양성-개인 2. 자유인의 양성-국민 3. 평화인의 양성-세계인	백낙준
1953학년도	1. 도의양양·생산진흥 2. 생활쇄신·국방강화 3. 문교독립·교육자치	김법린
1954학년도	1. 반공사상 함양·정신무장통일독립에 매진 2. 과학기술진흥·생산증강-경제발전에 기여 3. 건강위생증진·체위향상-국토방위에 공헌	김법린
1955학년도	1. 반공사상을 철저히 기르고 민주주의 생활을 독립시킴으로써 통일독립의 선봉이 되게 한다. 2. 과학기술을 진흥하여 생산을 증강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3. 건강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도의 체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토방위의 간성이 되게 한다.	이선근
1956학년도	1. 반공사상을 투철히 기르고 민주주의 생활을 확립케 한다. 2. 과학 및 실업교육을 충실히 하여 생산기술을 체득케 한다. 3. 보건위생 및 체육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신체로 발육케 한다.	이선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출판부 편, 『韓國教育30年史』, 1977, 639-641쪽 참조)

이러한 이념 교육의 강화는 문교부의 1950년대 중점 장학방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초대 문교장관인 안호상의 일민주의는 교육을 정권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 것인데, “自由國民은 社會的 共同體의 利益을 爲하여 自己自身을 犧牲한다.”<sup>21)</sup>는 슬로건 아래 전쟁기 교육정책을

21) 백낙준 박사 선집으로 한국전쟁 후 간행된 이 책에서 백낙준은 ‘한국의 전시교육’을 회고하면서 자유국민이 가져야 할 기초적 자유로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를 들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고취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전쟁을 위한 이념적 선동의 도구로 교육을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문화협회 편, 『韓國教育과 民族精神』, 문교사, 1953, 43쪽.

담당한 2대 백낙준의 전시문교도 반공교육, 국방교육의 강조에 머물고 있어 아래에서 보듯 이념 강화 교육이 3대 김법린까지 큰 변화 없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국 직후의 일민주의 교육 및 학도호국단의 조직과 학생 자치 활동의 관제화 그리고 전시하의 전시문교와 도의교육, 국방교육의 강조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이는 곧 교육의 정치적 예측화와 도구화로 비유될 수 있다.<sup>22)</sup>

위에 제시한 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1951년부터 강조된 도의교육과 반공교육은 전쟁 이후 반공 교육 강화로 인해 그 자리를 굳히게 된다. 특히 그것인 민주주의 사회의 수호를 표방하면서 반공주의 규율의 내면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긍정적인 규범, 가치체계가 아니라 부정적인(negative) 배제의 논리로서, 그리고 ‘설득의 게임’으로서 보다는 강요, 충성에서의 요구로 귀착되어 온 것이 그 역사적 실체이다.<sup>23)</sup> 특히 이승만의 1공화국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주축으로 한 한민당 계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북진통일과 친미주의를 앞세워 자신들의 부정과 독재를 은폐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공주의에 침윤된 아동문학 교육은 현실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전시기 제도권의 아동문학 교육이 ‘반공’을 빌미로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강화<sup>24)</sup>시키고 아동들의 의식 깊숙이 적대적 정서를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볼 때 전시기의 아동문학 교육은 자라나는 아동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차원에서 군사적 문화에 젖어들게 함과 동시에 반공을 국시로 떠받들면서 반공의 규율을 일상적으로 내면화시킴으로써 타자로 상징되는 북한을 끊임없이 적대화하는 부정적 계몽 기획으로 작동하였다.<sup>25)</sup> 그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편집 전국대학강사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교육백서』, 풀빛, 1989, 49쪽.

23) 김동춘,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1997, 38쪽.

24) 한만길, 『1950년대 민주주의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한국교육문제연구회 편 『한국교육문제연구—교육과 국가』 2집, 푸른나무, 1989, 186쪽.

25) 국방교육의 강화는 “共產主義는 우리 人類의 敵이라는 信念下에 共產黨을 처부순다는

런 의미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정부의 독점적인 중앙관리방식으로 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비판적 사고와 무관한 기능주의 교육과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병행하게 됨으로써 분단의 영속화를 부추기는 분단교육으로 귀결되었다는 지적<sup>26)</sup>은 뼈아픈 통찰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한 이념의 배양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의 경사가 아니라 균형 잡힌 의식 교육을 통해 길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2. 체험적 글쓰기를 통한 타자 적대의식의 강화

전쟁기에 실시된 반공주의 아동문학 교육은 비제도적인 문화 운동과 아동문단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전달의 기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아동문학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전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교육에의 직간접적 파급력은 상당한 밀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월남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계의 아동문인들이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의 이념을 전달하는 종군 작가로 직접 전쟁문학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정치, 사회, 역사적 배경에 그 근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전쟁을 위한 무기로서의 문학은 용인된다.”는 자가당착적 논리와 함께 직접 총을 메우고 전투에 참여하는 대신 붓으로 싸운다는 선전 선동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sup>27)</sup>

---

強한 情神을 가지고 이 나라의 戰爭이 正義를 爲한 戰爭이며 이 世界의 道義的 戰爭을 勝利로 終幕을 捲우게 한다는 認識을 철저히 鼓吹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전시문교는 “애국 애족과 민주주의의 굳은 신념으로 정신을 무장하여 멸공구국사상을 함양하고 전시생활 교육의 철저를 기하고 국방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교육 본연의 성찰적 기능이 거세되고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내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이면인 것이다.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편, 『韓國教育十年史』, 豐文社, 1960, 145쪽.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과위원회,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과서 백서』, 푸른나무, 1990, 102쪽.

27) 그러한 종군 작가의 정신적 이념은 “특히 현대전에 있어서의 전쟁 이념이란 매우 중대한 무기인 동시에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므로 문학은 정신적 무기로서 간주된다”는

특히 1950년대 아동문학의 경우 종군작가와 월남 작가, 기독교계 작가들이 국가의 비호를 등에 업고 주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우위 시대 아동문학 교육의 상황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기독교계에 대한 탄압으로 월남한 작가들의 경우 이미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개인적 체험을 통해 깊숙이 내면화하고 있었고, 새로이 정착해야 할 남쪽에서 확고한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공과 멸공의 실천이라는 정치적 수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물론 작가들 중에는 김요섭의 경우처럼 이념대립에 매몰되지 않고 전쟁의 참혹한 비인간성과 정신적 상흔을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형상화한 아동문학 작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월남 작가들의 경우 강소천의 활동과 같이 적대적 시선에 일방적으로 경사되어 균형 감각을 상실하였던 것이 대다수 월남 아동문학 작가들의 실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이 전쟁 당시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전선동의 장치로 전략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당시 지배 관리의 부유층으로 대변되는 상류계급의 자제들은 징집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었고, 힘 없는 일반 서민층의 자제들만이 징집되어 대부분의 인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시대사적 불행은 하근찬의 『수난시대』가 보여주는 것처럼 식민지시기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민중적 고통과 연결되어 또 다른 역사의 환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동문학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아동 계몽이 피아를 선명히 구분하는 적대적 이분법에 침윤되어 있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해방이후부터 우익계열의 아동문화 운동을 이끌던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마해송과 함께 종군문인으로 참전하면서 한국전쟁기에 이르러 반공주의의 아동문학적 구현과 전파에 앞장서서 활동하였는데 국방부 정훈국에 소속되어 펴낸 소학생 작문 모음집인 『내가 겪은 이번 전쟁』

---

논리로 집약된다.

박영준, 『종군작가시절』, 『대한일보』, 1969. 4. 7~1970. 12. 10 ;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11-12쪽 참조.

(박문출판사, 1951)은 한국 전쟁 중에 집필된 아동들의 체험적 원고를 모았다는 점에서 전쟁 상황에 처한 동심의 모습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sup>28)</sup>

9월달이 가까워 온 어느날 밤, 기쁜 소식이 들려 왔다. 유엔군의 총공격 개시! 암흑 세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햇빛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 날은 드디어 왔다. 쿵쿵 탕탕 쿵쿵! 대포 소리, 비행기의 기총 소사 소리, 새벽부터 시작되어 어느덧 밤이 되었다. 하늘과 땅은 불바다로 변하였다. 정의의 ‘불 심판’은 시작된 것이다! 나는 무서움보다 기쁨이 앞섰다. 그 날은 뜬 눈으로 세웠다. 새벽녘이 되자 타르륵 타르륵 하며 탱크 부대가 들어 왔다. 비행기는 공중을 빙빙 돈다. 해리콧터다.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였다.

정의는 이겼다! 태극기를 옆에 끼고 용감히 입성하는 국군 아저씨! 손짓 하며 웃음을 던져 주고 받아 주는 유엔군!

쫓겨 가는 공산군과 내무서원이 불을 질러 시가는 무참히도 재로 화했다.

그러나 길을 가는 사람들 얼굴에서 한 가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기쁨에 넘쳐 흐르는 눈물이었다.

자유를 도로 찾은 것이었다!

자유! 자유!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한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의 참 맛을 볼 수 있었다.  
(윤석중 아동 연구소 편, 『내가 겪은 이번 전쟁』, 박문출판사, 1951, 5-6쪽)

이튿날, 유엔군 탱크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유엔군 만세! 용감한 우리 국군, 유엔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윤석중 아동 연구소 편, 『내가 겪은 이번 전쟁』, 박문출판사, 1951, 11쪽)

28) 이 아동문학 자료의 발굴은 한국전쟁기 아동문학 교육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참조 준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아동 교육 자료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논할 수 있으며, 서울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의 도움을 얻었다. “이 책은,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6월 25일에 터진 한국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난 4285년 이른 봄에, 전국적으로 모은 3천여 편의 소학생 작문 “내가 겪은 이번 전쟁”을 문교부 초등 국어 편찬 위원 윤태영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이 뽑아 스물두 편을 추려 모은 책이다. 김용환 선생님의 그림과 이희승 선생님의 작품 평가까지 곁들인 이 책이 작문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은 물론 이거니와 동심을 통해 본 전쟁 기록으로도 오래 오래 갈 것을 믿어 마지않는다.”라는 서문이 실려 있다.

아동들이 겪은 전쟁 체험을 생활 수기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는 작품들의 전편은 적에 대한 무의식적 증오와 전쟁으로 인한 극한적 고통으로 가득하다. 특히 그것이 기존의 공식화된 한국전쟁 해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의 반공주의의 뿌리가 이미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에 의해 이념적으로 유도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자유와 억압으로 표상되는 선명한 대립 축과 피해의식은 적에 대한 적개심에 의해 해소된다는 점에서 아동 정서의 파탄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타자를 절대적으로 적대시하는 도식적인 전쟁 해석은 누가 전쟁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누렸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가라는 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질문조차 던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sup>29)</sup>

또한, 아동 글쓰기 교육이 글쓰기의 본질 자체에 대한 탐구나 사고 표현 능력의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신 교육의 한 방편으로 수단화되었다는 것은 전시기 아동교육이 올바른 작품 능력 향상을 도외시하고 교육을 이념 대립의 도구로 간주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러한 이념 대립의 전쟁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를 전일적인 적대화로 몰고 가는 이데올로기적 대결 의식이 문제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단순 대결 구도에서 전쟁의 참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나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대립의 원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탐구는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주의의 명백한 의도를 반영하는 포스터와 표어의 제작과 유포과정은 일방적인 정책의 홍보를 벗어나 교육과 제도를 통해 국민 스스로 제작하게 함으로써 슬로건 사회의 자발적 참여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지적은 재삼 음미해야 할 부분이다.<sup>30)</sup> 정치적 해게모니는 대다수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성립되지 않으며, 프로파간다적인 문학의 교육적 기획은 분단 모순에 놓인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슬로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계몽성의 한가운데에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의 모습이 뿌리 깊은 역사적 상흔으로 각인되어

29)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6, 386쪽.

30) 김진송, 「전쟁 빼라와 슬로건 사회－빼라는 아직도 살포되고 있다」, 『빼라에서 문화읽기 사이버문화까지』, 현실문화연구, 2000, 130쪽.

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아동문학 교육의 또 다른 역사이며, 극복해야 할 타자로서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 4. 아동문학 교육의 역사성과 균형성의 회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의 모습은 반공 규율의 내면화와 타자 적대意識의 강화로 점철되어 있다. 그것이 비록 전쟁기의 불가피한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내면적 심리와 억압의 메커니즘이 오늘날에까지 면면히 이어져서 주체의 내면을 옥죄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는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무의식적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금제를 뛰어넘어 균형 잡힌 아동문학 교육을 실천하는 일이 오늘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반공주의가 여전히 문학 교육적 검열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현실주의 아동문학 작품들을 불온한 것으로 매도하는 의식의 편향성에서 확인된다. 아동들의 주체 형성과 비판적 인식력에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주의 아동문학 교육의 근본 동력을 부인하는 것은 실제로 뿌리 깊은 반공주의의 무의식적 내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분단 현실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교육을 만들어나가는 일은 역사적 현실을 바로 보는 현실주의 아동문학 교육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문학 교육을 내밀하게 규율해 온 반공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각 시기별 쟁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비판 논리를 바탕으로 역사성과 균형성을 회복하는 아동문학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적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대결 심리를 조장하는 것보다는 전쟁의 원인과 고통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중점이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과 아동문학은 다같이 이데올로기의 압력이나 정치적 전

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약한 존재란 점에서 한층 사려 깊은 교육적 논의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불합리하고 폭압적인 아동문학 교육의 논리를 탈피하고 현실 의식을 확충한 아동문학 교육 실천을 담보하는 토양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겨져 있다.\*

---

\* 본 논문은 2008. 6. 23. 투고되었으며, 2008. 7. 2. 심사가 시작되어 2008.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1. 자료

윤석중 아동연구소 편(1951), 『내가 겪은 이번 전쟁』, 박문출판사.  
 한국교육문화협회 편(1953), 『韓國教育과 民族精神』, 문교사.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편(1960), 『韓國教育十年史』, 豐文社.  
 한국교육문제연구소(1974), 『文教史(1945~1973)』, 중앙대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출판부 편(1977), 『韓國教育30年史』,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출판부.

### 2. 참고논저

강웅식(2005), 「전체주의적 반공주의와 순수·참여 논쟁」,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195-228쪽.  
 강준만 외(1997), 『레드 콤플렉스—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 삼인.  
 강준만·김환표(2004), 『희생양과 죄의식—대한민국 반공의 역사』, 개마고원.  
 강진호(2001), 「탈분단을 위한 마음의 감옥 열기—냉전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지평」, 『  
 탈분단시대의 문학 논리』, 새미, 87-105쪽.  
 강진호(2004), 「반공주의의 소설·사회학적 기능」,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315-345쪽.  
 강진호(2004),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  
 명출판, 370-393쪽.  
 강진호(2005), 「반공의 규율과 작가의 자기 검열」,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  
 학』, 깊은샘, 229-272쪽.  
 강진호(2007), 「‘국민 만들기’와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  
 누림, 83-114쪽.  
 강진호(2005), 「반공주의의 규율과 ‘국어’ 교과서」, 『민족문학사연구』 28호, 민족문학  
 사학회, 143-178쪽.  
 고길섭(1995), 「반공하는 삶—주체 만들기」, 『우리 시대의 언어게임』, 토담, 231-232쪽.  
 권오삼(1997), 「분단조국과 아동문학의 역할」, 『아동문학평론』 83호, 아동문학평론사,  
 1997 여름, 17-36쪽.  
 권혁범(2000),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분단 규율’을 넘어서기 위하여」,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49-63쪽.

- 권혁범(2000),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조한혜정 · 이우영 편,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9-65쪽.
- 김동춘(1997),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37-84쪽.
- 김동춘(2006),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 김상욱(1993), 「전형성의 이해와 소설교육」, 우한용 외, 『소설교육론』, 평민사, 175-204쪽.
- 김예나(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의 구현 양상」,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2007, 53-82쪽.
- 김정훈 · 조희연(2003),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123-200쪽.
- 김진경(1989), 「분단 이후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전환기의 민족교육』, 푸른나무, 174-197쪽.
- 김진기(2005), 「반공에 전유된 자유, 혹은 자유주의」,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 문학』, 깊은샘, 157-194쪽.
- 김진송(2000), 「전쟁 빼라와 슬로건 사회—빼라는 아직도 살포되고 있다」, 『빼라에서 문화읽기 사이버문화까지』, 현실문화연구, 119-132쪽.
- 김한식(2005), 「김동리 순수문학론의 세 층위—반공주의와 순수문학의 상동성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11-48쪽.
- 남정현 · 강진호(2003), 「혐로를 가로지른 문학의 도정」, 강진호 · 이상갑 · 채호석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197-232쪽.
- 박영준, 「종군작가시절」, 『대한일보』 1969. 4. 7~1970. 12. 10.
- 방금단(2007), 「‘국어’ 교과서에 드러난 민족주의 구현 양상」,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리, 179-200쪽.
- 선안나(2007), 「1950년대 아동문학에 나타난 반공주의」, 『천의 얼굴을 가진 아동문학』, 청동거울, 131-162쪽.
- 선안나(2007), 「마해송과 반공주의」, 『천의 얼굴을 가진 아동문학』, 청동거울, 163-171쪽.
- 선안나(2007), 「문단 형성기 아동문학장의 고찰」, 『천의 얼굴을 가진 아동문학』, 청동거울, 97-130쪽.
- 신영덕(2002),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 유임하(2005),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작가의 자기 검열」,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129-156쪽.
- 이봉범(2005),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49-98쪽.
- 임지현(2000),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3-48쪽.

- 장영미(2007), 「주체의 소멸과 권력의 메커니즘」,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25-248쪽.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과위원회(1990),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과서 백서』, 푸른나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편집 전국대학강사협의회 (1989), 『민주화를 위한 교육백서』, 풀빛.
- 정미숙(1989), 「초기 한국 문교정책의 교육이념 구성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분석」, 교육출판기획실 편,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102-158쪽.
- 차혜영(2005), 「국어 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 상허학회 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깊은샘, 99-128쪽.
- 차혜영(2007), 「한국 현대소설 정전화 과정 연구」,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77-298쪽.
- 최윤정(2007), 「교과서 속의 어린이상(像)과 국가」,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49-276쪽.
- 최태호(1991), 「編修秘話」,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編修의 뒤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2-22쪽.
- 한만길(1989), 「1950년대 민주주의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한국교육문제연구회 편, 『한국교육문제연구-교육과 국가』 2집, 푸른나무, 162-187쪽.
- 한준상·정미숙(1989),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 4권, 한길사, 343-369쪽.
- Pierre Bourdieu., Language and Symbolic Power, 정일준 역(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 柄谷行人(1980), 「兒童の發見」, 『日本近代文學の起源』, 講談社.

<초록>

아동문학 교육에 반영된 반공주의 비판  
-1950년대 戰時期 아동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임성규

분단 현실의 모순은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발호를 가져옴으로써 진정한 아동문학 교육의 ‘성찰적 근대화’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반공주의는 국가주의 및 애국주의 담론과 전횡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쟁기 이후 아동문학 교육의 저변에 뿌리깊이 자리 잡았으며, 그러한 이념적 금제는 비판적 사고를 진작시키는 현실주의 아동문학 교육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실제 아동들의 역사적 삶과는 무관한 순수주의 아동문학이 교육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국가주의를 숭상하는 관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전면화된 것이 아동문학 교육의 반민주적인 역사의 흐름인 것이다.

실제로 반공주의의 영향력은 아동문학과 아동문학 교육에서 더욱 전일적인 형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동문학과 아동문학 교육의 경우 성인이 아동에게 제 공한다는 소통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전달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기 십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시 체제 속 아동문학 교육의 모습은 전쟁 경험을 곧 교육의 내용으로 치환하면서 반공 규율을 내면화시키는 일에 주력하였고, 피아를 선명히 구분하는 이분법 속에서 적으로 상정된 타자를 무조건 적대화하는 이념 우위의 교육으로 경사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1950년대 전시기 아동문학 교육의 부정적 실상은 극복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으며, 전쟁의 원인과 고통을 현재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균형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핵심어】 반공주의 아동문학 교육, 전시 아동교육 체제, 반공 규율의 내면화, 타자 적대의식의 강화, 역사성과 균형성 회복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Anti-Communism  
of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Centered on 1950'S Wartime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Lim, Sung-kyu

This paper aimed to critically examine anti-communism of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in the 1950's wartime. Contradiction of broken reality disturbing real reflective moderniz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through ideological domination. Specially, anti-communism is linked to nationalism and chauvinism, it was located the base of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after wartime. And, its ideological prohibition is regard to disturbing that realism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that promote critical thinking.

Actually, the power of influence is full-timely work in children and children's literature. Because its special feature that man supply children is easy of approach means of ideological transmission. So, form of wartime children's literature is internalization of anti-communism discipline that war experience is transposition content of education, and doctrine predominance education that antagonist others in the dichotomy of self and others division. Accordingly, negative real facts of 1950's wartime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is leave to historical task that have to conquer, recovery of balancing perception that reflect causer and pain of war in recent view have to achieve.

**[Key words]** anti communism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wartime children education system, internalization of anti-communism discipline strengthening of others antagonism, recovery of historicity and balance